

현대차, 美 모빌리티 업체 '미고'에 전략적 투자

美-유럽-亞 '모빌리티 벨트' 구축... 공유경제 강자로

선호 차량공유 서비스 정보 제공
모빌리티 시장 확대에 경쟁 심화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업체 미고(Migo)와 상호협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실시했다. 이로써 미국-유럽-아시아를 잇는 '모빌리티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게 됐다.

11일 현대차는 "미고 투자를 통해 미국 공유경제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한 진영이 갖춰진 셈이다.

미고는 2016년 미국 시애틀에 설립, 2017년부터 모빌리티 다중통합이라는 신개념 서비스를 미국 최초로 선보인 업체다. 모빌리티 다중통합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현대차 글로벌 모빌리티 비즈니스 대응 현황〉

지역	국가	협업 업체	주요 사업
미주	미국	미고	모빌리티 다중통합 서비스
유럽	네덜란드	-	아이오닉EV활용 카셰어링
	한국	메쉬 코리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플랫폼
	싱가포르	그랩	캐 헤일링 서비스
아태	인도	레브	카 셰어링 서비스
	중국	임모터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배터리 공유
	호주	카넥스트도어	P2P 카 셰어링 서비스



미고 앱 실행 모습

사용자가 미고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다양한 공유 업체들의 서비스 가격, 소요시간 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사용자에게 적합한 업체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미고는 사용자를 연결해 준 공유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카2고, 집카 등 미국의 대표 카셰어링 업체들을 비롯해 우버, 리프트, 마이택시 등 카셰어링 업체 라임바이크, 스핀 등 자전거 공유업체들의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정보도 지원한다.

미고는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는 뉴욕, LA, 워싱턴, 시카고 등 미주 주요 75개 도시로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했다.

미고에 대한 현대차의 투자가 비교적 초기에 이뤄져 투자 기업 중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가 유일하다. 미고의 독특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470억달러 규모의 미국 모빌리티 시장은 2025년 29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2030년에는 458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보다 많은 공유업체와 다양한 유형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미고와의 파트너십 결성으

로 현대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아태지역을 잇는 '모빌리티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게 됐다.

유럽지역에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이오닉EV를 활용한 카셰어링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인도 카셰어링 업체 레브(Revv) ▲국내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 전문업체 메쉬코리아(Mesh Korea) ▲동남아시아 최대 카셰어링 업체 그랩(Grab) ▲중국의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배터리 공유 업체 임모터(Immotor) ▲호주의 P2P 카셰어링 업체 카넥스트도어(Car Next Door) 등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망한 모빌리티 업체들을 발굴하고 협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아시아나항공, 오키나와 항공권 특가 이벤트

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앱으로 구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달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천/부산-오키나와 항공권 특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왕복 총액 기준 최저가 ▲인천-오키나와 19만9600원 ▲부산-오키나와 17만46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해당 노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다이버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수하물 1개(최대 23kg)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V, L클래스 항공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발 당일 탑승수속 카운터에 항공권과 PADI 다이버 자격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글로벌 스쿠버 다이빙 트레킹 기관인 PADI, 마린 레프초센터 SEA SIR과 제휴해 항공권 구매자 대상으로 오키나와 현지 숙박 예약과 다이빙 장비 대여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추첨을 통해 일본 노선 왕복 항공권과 다이빙 용품을 비롯한 경품도 증정한다.

무료 수하물 제공 등 각종 혜택은 아시아나항공이 직접 운항하는 인천/부산-오키나와 노선을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탑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아차가 특별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

현대기아차,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17일부터 5일간 방문객 대상

현대·기아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11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와 1400여 블루핸즈에서,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와 800여 오토큐에서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기아차는 추석 귀성길 차량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점검해 장거리, 장시간 운행에 따른 각종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현대·기아차는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 사항 점검 서비스와 워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블루핸즈 입고 고객 중 현대차 차량 관리 앱 '마이카스토리' 가입 고객에게 무상 점검 서비스뿐만 아니라 수리 공임 1만원 할인 혜택 및 워셔액 무상 제공 쿠폰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르노삼성, 상용밴 '마스터' 출시... 국내 도전장

국내 프리미엄 대형 밴 소비 확산
현대·기아차 아성 흔들까 '관심'

최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레저와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프리미엄 대형 밴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경상용밴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르노삼성자동차가 오는 10월 1톤급 경상용밴 '마스터'를 국내 출시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마스터는 1980년 1세대 모델이 출시됐으며 현재는 2011년에 출시한 3세대 모델이 전세계 4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돼 현재까지도 유럽 지역 내 상용차 시장의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46만2859대의 상용차 모델을 판매했다.

이번에 국내 출시되는 모델은 마스터 S(숏바디 모델)와 마스터 L(롱바디 모델) 두가지다. 한국형 마스터는 2.3L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145ps, 최대토크 34.7kg·m를 뽐낸다. 동종 모델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트윈터보 디젤 엔진이 뛰어난 퍼포먼스와 높은 연비효율을 갖추고 있다.

다만 국내 상용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장악하고 있어 르노삼성이 어떤 전략으로 경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 상용차 시장은 연간 25만대 규



르노삼성자동차 경상용밴 마스터.

모로 경상용차의 경우 현대·기아차 스타렉스, 포터, 봉고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1톤급 포터와 봉고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상용차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상용차 판매 내수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1.1%, 2017년 92.8%, 2018년 상반기 94.1%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관계자는 "마스터는 돌출형으로 디자인된 엔진룸을 갖추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전문 구동 방식으로 쾌적한 승차감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행 중인 도로여건에 맞춰 구동축의 능동 제어가 가능한 '익스텐디드 그립 모드'를 제공하며, 대형 화물차에

서 활용되는 트레일러 스윙 어시스트스 기능 등의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모두 3년 또는 10만 km까지 품질을 보증한다.

르노삼자동차 측은 이번에 출시될 마스터가 한국 상용차 시장의 독점적인 구조를 뛰어넘을 대체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르노삼성의 김태준 영업본부장(상무)은 "기존 상용차 시장은 1톤 트럭을 중심으로 드롭사이드(화물칸이 노출된 형태) 방식과 밴(화물칸이 별도의 박스 형태로 밀폐된 형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물류용 택배 트럭과 상업용 트럭 부분에 집중된 시장 구조는 현대기아의 독점적 모델에 의존하고 있어 마스터와 같은 새로운 모델에 대한 수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로템, 556억 규모 부산 1호선 전동차 수주

현대로템은 11일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 1호선 전동차 48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약 556억원이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전동차는 창원공장에서 생산돼 2020년까지 모든 차량 납품이 완료되며 총연장 40.48km의 노포역~다대포해수욕장역 부산 1호선 전 구간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

고 있는 1호선 노후차량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로템은 지난 2013년 48량, 2016년 40량 등 최근 5년간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된 부산 1호선 3건의 신규 전동차 사업들을 모두 수주했다.

이번 신규 전동차 48량은 8량 1편성의 총 6개 편성으로 구성되며 운행 최고속도는 80km/h다. 승객 편의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도입해 객실 내 최적의 공기질을



현대로템 부산 1호선 전동차.

유지하며 조도제어장치도 탑재해 차량 외부 밝기에 따라 객실 내 조명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